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문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산보호협력국<br>다자기구팀 | 과 장 박시영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481-8197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산보호협력국<br>국제협력과 | 서기관 황상동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481-507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산보호협력국<br>국제협력과 | 과 장 박용주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481-506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재산보호협력국<br>국제협력과 | 서기관 박현수                        | 042-481-8659 |
|  |                    | 2018년 9월 26일(수)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|

## - 특허청 차장 WIPO 총회 참석 및 주요 성과 -

□ 특허청은 9월 26일(수), 최근 개최된 제58차 세계 지식재산기구(WIPO;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)<sup>1)</sup> 회원국 총회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발표했다.

- 지난 9월 24일(월)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WIPO 총회는 전 세계 191개 WIPO 회원국이 참가하여 한 해 동안 WIPO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.
-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총회 개막일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,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가 급증하는 등 지재권 환경이 복잡·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.

- 또한, 프란시스 거리(Francis Gurry) WIP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지재권 분야 발전을 위한 양 기관간 협력과 한국 신탁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도 공유했다.

- 한편, 김 차장은 9월 25일(화) 제네바 WIPO 본관에서 백지아

1) WIPO는 UN 산하 16개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이다. WIPO 회원국 총회는 191개 회원국의 특허청장들이 참석하여 특허제도 조화,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제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서, 매년 9월~10월 중 WIP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.

주 제네바대표부 대사, 프란시스 거리(Francis Gurry) WIPO 사무총장,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청의 WIPO 한국신탁기금<sup>2)</sup>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아용 지재권 교육 콘텐츠인 '발명왕 뽀로로'의 신규 에피소드 및 아랍어 버전 출시 행사에 참석해

-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과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지원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, 회원국들의 성원을 당부했다.

○ 더불어 김 차장은 유럽 특허청(EPO), 유럽 지식재산청(EUIPO), 영국, 캐나다, 브라질, 사우디, UAE, 유라시아, 스웨덴 등 9개 특허청·지식재산청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지재권 정상 외교를 펼쳤다.

- 특히, 유라시아 특허청(EAPO)과 PPH MOU<sup>3)</sup>를, 사우디 특허청과 사우디 지재권 시스템 개선 지원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, 국내 출원인의 해외 특허출원 편의를 제고하고 지재권 행정 시스템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.

[붙임1] WIPO 총회 참석 및 지재권 교육 콘텐츠 '발명왕 뽀로로' 출시

[붙임2] 지재권 행정 한류 확대 및 국제 협력 다각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황상동 서기관 (☎ 042-481-50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) 한국신탁기금(Korea-Funds-In-Trust)은 우리나라 정부(특허청)가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WIPO측에 공여하는 기금

3) 특허심사하이웨이(Patent Prosecution Highway): PPH 시행시 우리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특허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음

□ WIPO 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

-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지난 24일(현지시간),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 회원국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재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.
  - 특히, 날로 복잡해지는 지식재산권 출원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지식재산권 행정에 적용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.
  - 또한, 고도화된 현대사회에는 기존의 지식재산 제도가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이 발생되고 있어 유연한 보호 체계 확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.
  - 마지막으로 국제 지재권 분야 전문기구인 WIPO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기능 및 역할로서 글로벌 IP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.
- 또한, 김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을 만나(9월 26일) 대체적 분쟁해결(ADR) 분야 및 기계번역 분야 협력, 한국신탁기금 활용 사업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,
  - 특허청과 WIPO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
<WIPO 총회 기조연설 사진 >



- 지재권 교육 콘텐츠인 발명왕 뽀로로 행사 출시 행사
- 한편, 김 차장은 9월 25일(화) 제네바 WIPO 본관에서 열린 ‘발명왕 뽀로로’ 신규 에피소드 및 아랍어 버전의 출시 행사에 참석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재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  - ‘발명왕 뽀로로’는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지원으로 유아들의 기초적인 지재권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유아용 애니메이션\*으로 기존의 한국어, 영어, 불어, 스페인어 버전에 신규로 아랍어 버전을 공식 출시하게 됐다.
  - \* (구성) 창의발명(제1화), 특허(제2화), 상표(제3화) 기존 3개 에피소드에 추가로 디자인(제4화) 및 지재권 보호(제5화) 에피소드 출시
  - 김 차장은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, 프란시스 거리(Francis Gurry) WIPO 사무총장,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“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쉽게 지재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래의 소비주체가 될 아동들이 지재권을 보다 잘 활용하도록 교육할 목적으로 본 콘텐츠를 개발”하게 됐다고 밝히면서,
  - 특허청은 앞으로도 계속 WIPO와 함께 어린이부터 지재권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지재권 교육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므로,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성원을 당부했다.

<발명왕 뽀로로 출시 행사 사진>



(설명) 김태만 특허청 차장(왼쪽 3번째), 프란시스 거리(Francis Gurry) WIPO 사무총장(왼쪽 2번째),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(왼쪽 1번째)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**◆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 지원을 위한 협력 추진 합의**

-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9월 25일,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압둘아지즈 무하마드 알스와일렘(Abdulaziz Muhammad AlSwailem) 사우디 지재권청(SAIP;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) CEO와 회담을 갖고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- 이번 MOU에는 사우디 지재권청이 올해 5월 출범한 이후 외국 특허청과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서 압둘아지즈 알와실(Abdulaziz Alwasil) 사우디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관하는 등 MOU 체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.

\* 한-사우디 지재권협력 MOU 주요내용

| 구분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협력범위 | · 지재권 환경분석, 지재권 법·제도, SAIP 지재권 전략 수립, 국가 지재권 전략 수립, 역량개발, 정보화, 심사품질, 변리사 제도    |
| 이행방식 | · 협력이행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<br>· 고위급 및 실무회의 개최, 전문가 상호 방문 등<br>· 협력범위 이행을 위한 협력계획 수립 |

- 더불어, 양 청은 실무그룹 구성방안\* 및 사우디 지재권 행정자동화 시스템 개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의 실사팀이 사우디를 방문기로 합의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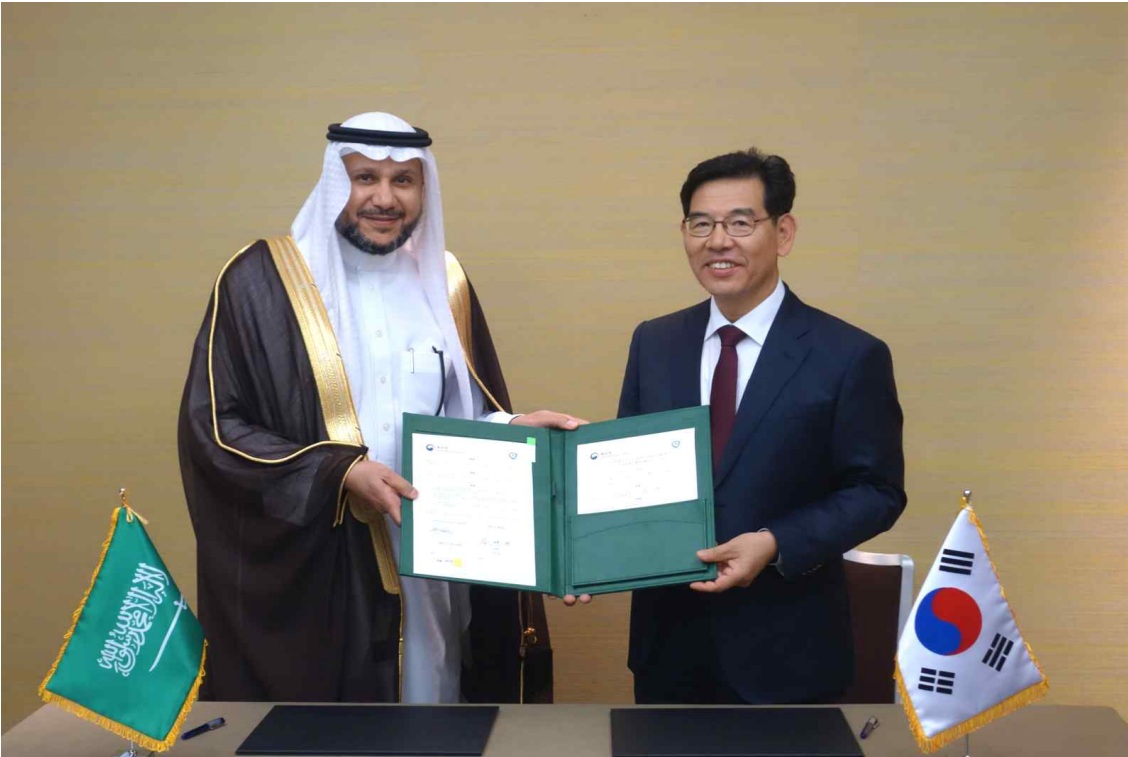
\* (1) 정책 실무그룹 (2) 업무절차 개선 실무그룹 (3) IT 실무그룹

- 알스와일렘 청장은 사우디지재권청의 4대 전략방향, 43개 세부과제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특허청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했음을 언급하였다.



- 금번 MOU 체결을 통해 기존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양국 간 협력이 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경제를 함께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한-사우디 특허청 MOU 체결 사진 >



(설명) 김태만 특허청 차장(오른쪽)과 압둘아지즈 무하마드 알스와일렘(Abdulaziz Muhammad AlSwailem) 사우디 지재권청 CEO(왼쪽)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## ◆ UAE 심사 서비스 대행 범위 확대

- 김 차장은 9월 25일,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모하메드 쉬히(Mohammed Al Shihhi) UAE 경제부(Ministry of Economy) 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특허청의 UAE 특허심사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- 한국은 2014년부터 UAE의 특허심사(연 8백여건 심사 착수)를 대행해 오고 있는데, 앞서 UAE 측에서 신규 심사 착수로 누적된 2,500여건의 중간 서류\*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.

\* 심사관의 최초 거절 의견 통지(심사 착수)에 대해 출원인(대리인)이 출원서 보정 및/또는 의견을 제출하면, 이에 대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여 '재차 거절 이유

통지', 또는 '등록 결정' 또는 '거절 결정'을 내리는 것

- 이에 대해 한국특허청은 UAE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심사 대행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결정기로 합의했다.
- 이와 더불어 양 측은 UAE가 한국특허청을 UAE의 PCT ISA/IPEA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중으로 관련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.

### ◆ 유럽특허청과 심사협력 확대 합의

- 김 차장은 9월 24일, 스위스 제네바 에서 안토니오 캄피노스(Antonio Campinos) 유럽 특허청(EPO) 청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미공개단계에서의 특허정보 교환 관련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.

-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까지 미공개 단계에 있다가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공개되나, 최근 한국과 유럽특허청을 비롯하여 주요 특허청의 심사착수(FA, First Action) 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단축\*됨에 따라, 미공개 단계의 특허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\*\*이다.

\* ('16 FA) 한국 10.6개월, EPO 5.1개월, 일본 9.5개월, 중국 16.9개월, 미국 15.7개월

\*\* '17년 한국 특허청의 전체 심사건(101,792건) 중 58.4%가 출원 공개 전 착수 건

- 한-EPO간 미공개단계 특허정보 교환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면 양 청간 업무공조를 할 수 있는 대상 특허가 확대되어 출원인이 특허심사하이웨이(PPH) 등을 통해 빠른 특허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.
- 또한, 이번 양 청간 시범사업 추진 합의는 다른 IP5 특허청을 비롯해 다른 특허청과의 사업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<한-유럽 특허청 회담 사진 >



(설명) 김태만 특허청 차장(오른쪽)과 안토니오 캄피노스(Antonio Campinos) 유럽 특허청장(왼쪽)이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◆ 유라시아에서 빠른 특허 획득

○ 김 차장은 9월 25일,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사울레 트레브소바(Saule Tlevlessova) 유라시아 특허청장(MEDT;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)과 지재권 분야 포괄적 협력 및 PPH(특허 심사하이웨이)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.

\* 동 MOU는 인력 교류, 지재권 법령 개정 동향 공유, 지재권 인식 제고,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

- 양 청간 PPH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출원인들은 CIS\* 국가에서 효력을 갖는 유라시아 특허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.

\* CIS(독립국가연합,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) 8개국: 러시아 연방,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스 공화국, 카자흐스탄 공화국, 키르기스스탄 공화국, 투르크메니스탄, 타지키스탄



- 이와 더불어 이번 포괄협력 MOU 체결은 한국이 지재권 분야 국제 협력을 CIS 국가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한-유라시아 특허청 MOU 체결 사진 >



(설명) 김태만 특허청 차장(오른쪽)과 사울레 트레브소바(Saule Tlevlessova) 유라시아 특허청장(왼쪽)이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